

# 개인 동일성 수업에서 영화의 활용\*

최 훈 (삼척대)

주제분  
류

형이상학, 철학 교육

주요  
어

개인 동일성, 영화, 신체, 기억

요약  
문

철학 수업에서 영화를 이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추상적인 이론에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 줄 수 있다. 이 논문은 철학 수업에 영화를 활용하는 한 가지 사례 연구이다. 수업 시간에 개인 동일성 주제를 강의할 때 영화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개인 동일성에 관한 주요 이론들을 소개한다. 개인 동일성은 주체의 특성상 가상적인 사유 실험이 많이 이용된다. SF 영화들은 그런 가상적인 상황을 영상으로 구체화했기 때문에 사유 실험을 가장 잘 드러내 준다. 나는 개인 동일성 이론들 간의 논쟁을 잘 보여주는 6가지 사유 실험을 중심으로 개인 동일성 문제를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유 실험들에 해당하는 영화의 장면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이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야 하는지 말하겠다.

\* 이 논문은 삼척대학교 2004년도 신입교수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 1. 영화를 활용한 철학 수업

대학에서 ‘철학 개론’ 또는 ‘철학 입문’과 같은 철학 수업은 ‘윤리학’이나 ‘논리학’ 수업보다 수강생이 적은 실정이다. 아마도 그 이유는 윤리학이나 논리학이 더 구체적이고 응용가능한 주제들을 다루는데 반해 철학 수업은 추상적인 주제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학생들은 철학의 주제들이나 철학자들의 주장을 현실과 거리가 먼 내용으로 받아들인다. 왜 이 세상에서 그런 문제들이 문젯거리로 성립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철학을 더욱더 어려운 과목으로 생각한다.

추상적인 철학 수업에 구체적인 예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영화를 이용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sup>1)</sup> 우리나라에서는 천만 관객이 드는 영화가 나올 정도로 온 국민의 영화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고 특히 대학생들의 영화 관람 비율은 더 높다. 그만큼 철학 수업에서 영화를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철학 주제들을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 또 많은 젊은 학생들은 자신이 영화에 대해서는 교사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교사보다 관람한 영화도 많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철학 주제에 영화를 도입하면 수업 시간에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흔히 지금의 젊은이들을 ‘할자 세대’와 구분하여 ‘영상 세대’라고 부른다. TV, 영화, 인터넷 등에 익숙한 젊은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 내내 말과 판서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고역일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OHP나 파워포인트같은 영상 매체를 많이 이용한다.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영화와 같은 영상물을 활용하는 것은 더 큰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대학교의 강의실은 VTR이나 빔 프로젝트 등을 설치하여 영상 매체를 쉽게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수업 시간에 영화 전편을 모두 보는 것은 강의에 필요한 시간을 빼앗게 된다. 수업에 필요한 영화를 학교의 영상 자료실에 비치하고 수업 전에 시청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수업 시간에 영화를 직접 보면서 관련 주제에 대해 강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므로 영화에서 수업에 필요한 부분들만을 골라서 보는 방법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디오 테이프보다는 원하는 부분에 접근하기가 용이한 CD나 DVD가 훨씬 더 편리하다. 또 필요한 부분들만을 미리 편집하여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철학 수업에서는 영화보다 철학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실제 국내에는 영화에 관한 철학적 저술들이 몇 권 집필 또는 번역되어 있다.<sup>2)</sup> 그 중 많은 책들이 철학 저술이라기보

---

1) 철학 수업에 영화를 활용하는 사례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Michael Scriven, "Increasing Philosophy Enrollments and Appointments Through Better Philosophy Teaching, Pt. 1"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 50, 1977, 234쪽); R. Boisvert, "Philosophical Themes in Bertolucci's Conformist" (*Teaching Philosophy* 4, 1984: 49-52쪽); G. Kreyche, "High Noon as a Paradigm of Kant's Moral Philosophy" (*Teaching Philosophy*, 11, 1988, 217- 228쪽); G. Colwell, "Plato, Woody Allen, and Justice" (*Teaching Philosophy*, 14, 1991, 399-407쪽); J. W. Lidz, "12 Angry Men" (*Teaching Philosophy* 18, 1995, 251-255쪽); S. Sullivan, "Kierkegaard, Choice and Zentropa" (*Teaching Philosophy* 19, 1996, 49-64쪽); J. Lenore Wright and Anne-Marie Bower, "Socrates at the Cinema: Using Film in the Philosophy Classroom" (*Teaching Philosophy* 26, 2003, 21-41쪽); . 이 논문은 Wright and Bower의 논문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2) 다음과 같은 책들이 있다. 이진경, 『필로시네마 혹은 탈주의 철학에 대한 7편의 영화』(새길, 1997); 김성환, 『나는 본다, 철학을』(동녘, 1998); 박병철, 『영화 속의 철학』(서광사, 2001); 김용규, 『영화관 옆 철학카페』(이론과실천, 2002); 이왕주, 『철학, 영화를 캐스팅하다』(효형출판, 2005); 매리 리치, 『영화로 철학하기』(이종인 옮김, 시공사, 2004); 마크 톨랜즈, 『SF 철학』(조동섭 외 옮김, media2.0, 2005); 크리스토퍼 팔존, 『영화

다는 ‘철학자의 영화 감상문’이다. 다시 말해서 철학적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영화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지식을 곁들여 영화에 대한 느낌을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 철학 수업에서는 반드시 철학이 주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철학 수업은 활자로 된 텍스트를 읽고 분석하는 훈련으로서 가장 좋은 과목이다. 따라서 특정의 철학적 개념이나 철학사를 설명한 다음 그것에 대한 보조 자료로서 영화가 활용되어야 학생들은 철학적인 사고와 분석 방식을 배울 수가 있고, 그것을 영화를 비롯한 일상사에 응용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철학 수업에 영화를 활용하는 한 가지 사례 연구이다. 수업 시간에 개인 동일성 주제를 강의할 때 영화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개인 동일성에 관한 주요 이론들을 소개한다. 개인 동일성은 주제의 특성상 사유 실험이 많이 이용된다. 사유 실험(thought experiment)은 가상적인 상황을 실험의 형태로 제시한 것이다. 과학자나 철학자들은 어떤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만들고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특정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판단을 내리기 위해 사유 실험을 즐겨 사용한다. 사유 실험은 특정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이론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가상의 예외적인 상황을 제시해서 그것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다.<sup>3)</sup> 그리고 사유 실험은 가상적인 상황이 퍼즐 형태로 제시되기 때문에 흥미도를 높일 수 있다. SF 영화들은 그런 가상적인 상황을 영상으로 구체화했기 때문에 사유 실험을 가장 잘 드러내 준다. 그래서 나는 철학 수업 중에서도 사유 실험이 많이 이용되는 형이상학, 심리철학, 윤리학의 강의에는 영화가 훌륭한 수업 소재라고 생각한다. 나는 개인 동일성 이론들 간의 논쟁을 잘 보여주는 6가지의 사유 실험을 중심으로 개인 동일성 문제를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유 실험들에 해당하는 영화의 장면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이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야 하는지 말 하겠다.

## 2. 개인 동일성 이론

개인 동일성(personal identity) 문제란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서도 한 개인이 똑같은 개인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철학적 문제이다.<sup>4)</sup> 가령 시간  $t_1$ 에서의 개인과  $t_2$

가 된 철학』(김성민, 김익현 옮김, 인간사랑, 2005).

3) 가상적인 상황은 논리적인 가능성만 있으면 허용된다. 실제로 많은 사유 실험은 기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만든다. 플라톤은 『국가』 2권에서 기계스가 반지를 돌리면 투명 인간으로 변하는 유명한 사유 실험을 제시한다. 그러나 투명 인간은 현실적으로 있지도 않고 물리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정재승의 『물리학자는 영화에서 과학을 본다』, 동아시야, 1999, 18쪽에 따르면 망막에 상이 맺혀야 볼 수 있는데 투명 인간의 망막은 투명해서 상이 맺히지 못한다). Kathleen V. Wiles, *Real People: Personal Identity without Thought Experi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는 이 불가능성 때문에 사유 실험의 가치를 부정한다. 그러나 Rachel Cooper는 그 불가능성이 사유 실험의 의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일관적이라면 상황의 설정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Thought Experiments”, *Metaphilosophy* 36, 2005: 328~347쪽), Tamar Szabo Gendler는 *Thought Experiment: On the Powers and Limits of Imaginary Cases* (New York: Garland Pub. Inc., 2000)에서 사유 실험의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는 개인 동일성 논의에서 자주 쓰이는 사유 실험을 그것의 성격과 가치에 대한 반성 없이 구성하겠다. 그 반성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

4) 영어의 ‘personal identity’는 ‘개인 동일성’뿐만 아니라 ‘인격 동일성’ 또는 ‘자아 동일성’으로도 많이 번역된다. 손병홍, “인간 복제와 동일성” (『과학철학』 6, 2001, 95~118쪽)과 김선희, “신체전송과 개인동일성의 문제”(『철학』 80권, 2004, 287~313쪽)는 ‘개인 동일성’으로, 박태진은 『자아 동일성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에서 ‘자아 동일성’으로 번역한다. 그러나 개인 동일성 문제는 개체로서의 한 인간을 시간의 변화 속에서도 같은 인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묻는 물음이므로 ‘인격’이나 ‘자아’보다는 구체적인 ‘개인’

에서의 개인을 동일한 개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조건 또는 기준을 제시하려고 하는 문제이다.

교사는 수업 시간에 이 문제를 철학적인 문제로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릴 때 사진, 최근의 사진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세 가지이다. 지금의 교사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돌 사진(A), 지금의 교사 모습과 똑같은 최근 사진(B), 그리고 수업하고 있는 바로 지금의 교사(C)가 그것이다. 먼저 교사는 학생들에게 B와 C가 동일한 개인인지 묻는다. 학생들은 같은 사람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이유를 묻는다면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올 것이다. 그때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을 설명한 다음 그것이 B와 C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B는 비록 얼마전의 나이지만 끊임없는 세포의 분화를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와 C를 동일한 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학생들이 B와 C의 경우에 개인 동일성 문제가 철학적 문제로 성립할 수 있음을 안다면 그것이 A와 C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할 것이다. A와 C는 닮은 부분을 억지로 찾을 수 있지만 동일하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신체뿐만이 아니다. C는 B와 기억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A까지 닿는 기억은 전혀 없다. 무슨 근거로 A와 C를 동일한 개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개인 동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근본적인 철학적 문제들을 전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무미건조해 보이는 근본적인 형이상학적 문제들을 묻고 대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다. 우선 개인 동일성 문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 인간의 본성을 신체에서 찾을 것인지, 생각에서 찾을 것인지, 영혼에서 찾을 것인지에 따라 개인 동일성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등장한다.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반성은 더 나아가 유전 공학, 컴퓨터 과학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복제 인간이나 로봇 등을 인간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적절한 대답을 줄 수 있다.

둘째, 개인 동일성 문제는 우리가 무비관적으로 쓰는 ‘같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개인 동일성 문제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동일성’ 또는 ‘같음’이 일상 언어에서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피터 파커가 바로 스파이더맨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때 ‘이다’는 동일성의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동일성은 “저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이 생겼다.”라고 말할 때의 동일성과 다른 뜻으로 쓰였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안다. 학생들은 이미 영어에서 ‘same as’와 ‘same with’의 용법을 배운 것도 그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적 동일성’과 ‘질적 동일성’의 차이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개인 동일성 문제에서 거론되는 ‘동일성’은 이 두 가지 동일성 중 수적 동일성임을 이해하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인 동일성 문제는 지속과 변화의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변화와 지속은 얼핏 보면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 것 같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은 곧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는 한 개인이 사실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개인 동일성 문제는 바로 그 변화 속에서도 지속되는 것이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묻는 문제이다. 따라서 주제 중심으로 접근하는 철학 입문 강의에서도 개인 동일성 문제를 꺼내면서 지속과 변화에 대한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의 철학과 거기에 이어지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이 가장 좋은 번역인 듯하다. ‘인격’이나 ‘자아’같은 추상적인 낱말로 번역했을 때는 앞으로 설명할 개인 동일성에 대한 특정 입장이 개입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개인 동일성 문제에 대한 답을 학생들에게 스스로 찾아보게 한다면 그 대답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개인 동일성을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인 신체 이론, 영혼 이론, 기억 이론이다. 이 중 학생들이 가장 쉽게 대답하는 이론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신체 이론이므로 이 이론부터 설명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 (1) 신체 이론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이 며칠 전에 본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신체 – 주로 외모 – 를 보고 판단한다. 위 예에서 B와 C가 동일한 개인이라는 것도 그 겉모습을 보고 아는 것이다. 물론 B와 C 사이에는 약간의 신체상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사의 대학생 때 사진(B\*)을 한 장 더 준비한다면 B\*와 C 사이의 신체상의 변화는 더 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시공간적으로 연속되는 신체에서 그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난 경우에는 신체의 동일함을 인정한다고 신체의 동일함의 조건을 완화한다면, B와 C는 물론이고 B\*와 C도 동일한 개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체의 동일성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sup>5)</sup>

그러나 A와 C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신체의 동일함에 근거해 같은 개인이라고 판단 내리기가 힘들다. 최근 인터넷에는 연예인들의 학창 시절의 성형 수술 이전 사진들이 올려져 있는데 누구인지 짐작하기 힘들 정도로 외모가 판이하다. 이것도 역시 신체 이론에 대한 반대 사례가 될 것이다.

철학자들이 신체 이론에 대해 흔히 제시하는 반례는 다음과 같은 사유 실험이다.

**사유 실험 1.** 친구 사이인 영미와 동호는 각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외계인들은 이들의 집에 눈치 채지 않게 침입하여 영미와 동호를 마취하고 각자의 뇌를 꺼낸다. 그리고 꺼낸 뇌를 서로 맞바꾸어 영미와 동호에게 이식한다. 이 과정에서 영미와 동호의 신체에 끼치는 손상은 전혀 없고 그들은 수술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채지 못한다.<sup>6)</sup>

영미와 동호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후 깜짝 놀랄 것이다. 동호의 뇌를 가지고 있는 영미는 자신의 몸이 동호의 것이라는 데에, 영미의 뇌를 가지고 있는 동호는 자신의 몸이 영미의 것이라는 데에 경악한다. 가령 동호의 뇌를 가지고 있는 영미는 “나는 영미가 아니야. 동호란 말이야!”라고 외칠 것이다.

학생들은 동호의 뇌를 가지고 있는 영미가 신체는 영미의 것이지만 사실은 동호라고 대답할 것이다. 비록 영미의 신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동호의 기억과 성격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직관이다. 따라서 사유 실험 1은 개인 동일성의 근거가 신체의 동일성에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 증거가 된다.

5) 신체 이론의 지지자는 Joshep Butler, “Of Personal Identity”, in J. Perry (ed.), *Personal Identi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와 Bernard Williams, *Problems of the Self*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가 있다.

6) 이 사유 실험은 개인 동일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Locke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는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ch. 27에서 왕자와 구두 수선공의 영혼이 뒤바뀌는 사유 실험을 제시한다. 그러나 Locke는 ‘영혼’의 뒤바뀜을 이야기했으므로 그의 사유 실험이 이 글의 사유 실험 1에 해당하는지 사유 실험 2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한편 B. Williams (1973), “Personal Identity and Individuation”, in *Problems of the Self*,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쪽과 J. Perry (1975), “Persona Identity, Memory, and the Problem of Circularity”, in J. Perry (ed.), *Personal Identity*, 1~2쪽, Sydney Shoemaker, *Self-Knowledge and Self-Identi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3), 23~4쪽에서도 이런 사유 실험을 볼 수 있다.

사유 실험 1이 신체 이론에 대한 반론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신체는 그대로 두고 뇌를 맞바꾸었기 때문이다. 뇌의 이식에 따라 개인이 지니고 있는 기억과 성격도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수술의 대상이 되는 뇌도 신체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얼른 알아차릴 수 있다. 뇌는 우리의 정신 활동을 담당하는 신체의 한 부위이지만,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이다. 따라서 사유 실험 1은 영미와 동호의 신체를 그대로 두고 뇌만 맞바꾼 사례가 아니라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를 맞바꾼 사례라고 보아야 하며, 그 경우 신체 이론에 대한 반례이기능커녕 강력한 옹호 증거가 된다.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인 뇌가 어디에 있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해 주기 때문이다.

애초의 신체 이론에서 말하는 신체가 단순히 외모만을 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신체 이론은 사유 실험 1과 같은 가상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성형 수술의 사례만 가지고도 쉽게 반박이 된다. 신체 이론의 신체에 뇌까지 포함시킨다면 사유 실험 1과 같은 공격을 벗어날 수 있을까? 다음 사유 실험을 생각해 보자.

**사유 실험 2.** 외계인들은 이번에도 잠자고 있는 영미와 동호의 집에 침입했다. 그들의 뇌를 이식하는 대신에 뇌에 저장된 정보를 그대로 기록하는 장치를 통해 영미와 동호의 뇌에 저장된 정보를 기록한다. 영미와 동호의 뇌를 맞바꾸는 대신 이 기록된 정보를 맞바꾸는 것이다.

정신적인 것들은 물리적인 것들에 의존 또는 수반한다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뇌에 저장된 정보를 그대로 기록하는 장치’는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화학 물질의 구성과 움직임을 기록할 것이고 이것이 곧 그 사람의 기억과 생각과 성격 등이 될 것이다. 사유 실험 2는 어떤 신체 부위도 바꾸지 않고 뇌에 저장된 정보만 바꿈으로써 사유 실험 1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사유 실험 2는 신체 이론에 대한 반대 사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sup>7)</sup>

## (2) 기억 이론

사유 실험 2는 한 개인의 동일성의 근거는 신체가 아니라 그의 기억, 믿음, 성격, 가치관 등의 심리적 특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시간 t1의 개인과 t2의 개인이 똑같은 기억과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둘을 동일한 개인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유 실험 2와 같은 ‘기억 전송’의 경우나 성형 수술의 경우를 모두 설명할 수 있다.

물론 t2의 내가 t1의 나의 기억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다. 더구나 t1이 돌 무렵이라면 기억을 전혀 공유하지 못한다. 그래서 개인 동일성의 기준으로서 심리적 특성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기억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곧 현재의 나는 작년의 나의 기억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연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작년의 나는 재작년의 나의 기억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연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한다면, 현재의 나는 어릴 때의 기억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 중간 고리들이 그때의 나와 현재의 나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개인 동일성에 대한 이런 이론을 심리적 연속 이론 또는 간단히 기억 이론이라고 한다.<sup>8)</sup>

7) 김선희는 『사이버 시대의 인격과 몸』(아카넷, 2004)에서 “신체 이전의 논리적 가능성에 근거하여 인격의 신체 동일성을 반박하는 입장들은 마음과 몸의 이원론을 배경으로 하고”(58쪽) 있는데, “그러한 이원론적 가정이 유지되기 어렵다면, 의식이나 두뇌의 신체 이전을 근거로 한 신체 동일론 비판은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58~9쪽)라고 말하고 있다. 김선희가 비판하는 신체 동일론 비판은 사유 실험 1을 가리키는데, 사실 사유 실험 1은 이원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체 이전의 사례가 아니므로 신체 이론에 대한 비판이 아닐 뿐이다. 설령 이원론을 전제한다고 해도 유물론을 인정하는 사유 실험 2는 여전히 ‘설득력’이 있는 비판이다.

다음 사유 실험은 이른바 ‘원격 전송’의 사례이다.

**사유 실험 3.**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외계인들은 순간 이동 전송기를 만들었다. 이 기계 안에 들어간 영미의 몸은 고통 없이 원자 단위로 분해되었고, 그 원자들의 정보는 기록 장치에 저장되었다. 이 저장된 정보는 영미가 이동하고 싶어 하는 장소에 있는 순간 이동 전송기로 보내진다. 이 기계는 보내진 정보를 바탕으로 영미의 몸을 만들어낸다. 이 모든 일은 순간적으로 일어난다.<sup>9)</sup>

순간 이동 전송기 안에서 영미의 몸이 분해되는 것은 영미가 죽는 것일까? 만약 죽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신체 이론에서는 이때 전송된 영미를 전송 전의 영미와 수적으로 동일한 개인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영미의 몸이 분해되는 것을 꼭 죽음으로 볼 수 있을까? 만약 사유 실험 3이 약간 변형되어 영미의 몸이 분해된 후 한참 있다가 복제된다면(사유 실험 3\*) 그 분해를 죽음으로 볼 수 있겠지만, 분해와 합성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면 죽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직관에 더 가까울 것 같다.<sup>10)</sup> 그러나 신체 이론과는 다르게 기억 이론에서는 분해와 합성 사이에 간격이 있든 없든 영미의 기억과 성격은 그대로 보존되므로 전송된 영미를 진짜 영미라고 인정할 것이다. 물론 심리적인 연속에 시간상의 간격이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불연속은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일어난다.

사유 실험 3 자체로는 어느 이론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사유 실험 3을 변형한 다음 사유 실험이다.

**사유 실험 4.** 순간 이동 전송기 안에 들어간 영미는 자신을 화성으로 보내도록 기계를 조작하였다. 그러나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화성의 순간 이동 전송기에서는 두 명의 영미의 몸이 만들어졌다.

이 실험은 분리(fission) 논증 또는 재복제(reduplication) 논증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기억 이론을 곤란하게 만든다.<sup>11)</sup> 이 실험에서 전송 전의 영미와 전송 후의 두 명의 영미(그들을

8) 기억 이론은 Locke의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에서 시작되어, Anthony Quinton, "The Soul", in J. Perry (ed.), *Personal Ident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5); H. P. Grice, "Personal Identity", in J. Perry (ed.), *Personal Identity*; J. Perry, "The Problem of Personal Identity", in J. Perry, *Personal Identity*; Sydney Shoemaker & Richard Swinburne, *Personal Identity* (Basil Blackwell, 1984)에서 세련화되었다.

9) D. R. Hofstadter와 D. C. Dennett이 『이런, 이게 바로 나야!』(김동광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1), 7~8쪽에서 말하는 텔레포터가 바로 이 사유 실험에서 말하는 원격 이동 전송기이다. 그리고 Sydney Shoemaker & Richard Swinburne는 *Personal Identity*의 108~9쪽에서 복제 신체와 신체 교환을 하기 위해 두뇌 상태를 전이하는 예를 제시하는데 이것은 두뇌 상태의 전이가 먼 거리에서 일어나는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가의 차이만 있지 사유 실험 3과 같다. 한편 정재승은 『물리학자는 영화에서 과학을 본다』, 376~7쪽에서 순간 이동을 위해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메모리가 필요하고 다시 그것을 전송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간 이동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불가능성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 정재승은 또 사람의 "기억과 꿈, 희망과 영혼까지도 똑같이 복제할 수 있을까?"라고 묻고 있지만, 이것은 심물 수반 입론을 받아들이는 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10) Derek Parfit은 *Reasons and Persons* (Oxford: Clarendon Press, 1984), 199~201쪽에서 그런 직관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김선희는 "신체전송과 개인동일성의 문제"에서 신체의 분해를 죽음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그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복제 인간은 행위의 "실체성, 역사성, 인과성"(301쪽)이 없기 때문이다. 즉 "내가 사라의 엄마라는 것은 내가 실제로 사라를 낳았다는 이유로 나에게만 참이지만, 나의 신체정보 복제체에게는 참이 될 수 없다."(302쪽) 그러나 왜 그런 경험까지도 복제할 수 없는가? 완벽한 전이라면 객관적 관점뿐만 아니라 그런 주관적 관점까지 왜 전이되지 못하겠는가?

‘영미\*’와 ‘영미\*\*’라고 부르자)는 모두 심리적으로 연속되어 있다. 그렇다면 영미\*와 영미\*\*는 똑같은 한 사람이어야 할 텐데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동시에 수적으로 동일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억 이론은 틀렸다는 것이다.

기억 이론이 사유 실험 4와 같은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분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비분리 조건의 기억 이론이라고 부르자. 곧 영미와 심리적으로 연속적인 영미\*와 영미\*\*로 분리되었다면, 영미\*와 영미\*\* 모두 영미와 동일한 개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에서는 영미는 순간 이동 전송기에서 분해되는 순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영미\*와 영미\*\*라는 새로운 존재가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영미\*와 영미\*\*는 각자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므로 그들의 동일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기억 이론이 이런 식으로 비분리 조건을 내세워 사유 실험 4를 피해가는 것은 사유 실험 3과 분해의 과정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받아들이기 힘들다. 두 사유 실험에서 모두 영미는 분해되었고 분해된 원자의 정보를 저장한 후 한 명으로 복제했느냐 두 명으로 복제했느냐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비분리 조건의 기억 이론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유 실험들을 해명할 수가 없다.

**사유 실험 5.** 외계인들이 순간 이동 전송기의 원리와 비슷한데 사람을 분해시키지 않고 원자 수준의 정보를 그대로 저장하는 장치를 만들었다고 해 보자. 외계인들은 영미가 잠든 사이에 이 장치로 영미의 복제 인간을 만들었다.

이 실험에서는 영미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미와 신체 구조 그리고 기억까지 연속적으로 갖는 또 한 명의 영미(영미\*)가 탄생하게 된다. 사유 실험 5와 사유 실험 4의 차이점은 영미가 분해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유 실험 5에서는 영미-영미\*로, 사유 실험 4에서는 영미\*-영미\*\*로 분리되었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그런데 사유 실험 4에서 분리된 영미\*와 영미\*\*는 원래의 영미와 동일한 개인이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사유 실험 5에서도 잠에서 깨어난 영미와 영미\*도 분리된 개인들이므로 잠들기 전의 영미와 동일한 개인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결론이 따라 나온다. 그러나 우리의 직관으로는 영미\*는 아니더라도 잠들기 전의 영미와 잠에서 깨어난 영미는 동일한 개인이다. 영미는 그냥 잠을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더 이상 영미가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사유 실험 5를 다음과 같이 바꾸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사유 실험 6.** 외계인들이 영미가 잠든 사이 그녀의 정보를 복사하여 영미\*을 만든 직후 영미는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다. 이제 세상에는 영미\*만 존재하게 되었다.

이 실험에서는 본의 아니게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비분리 조건의 기억 이론에 따르면 영미\*가 잠들기 전의 영미와 유일하게 심리적으로 연속된 개인이므로 그 둘은 동일한 개인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의 직관과 위배된다. 우리는 이 실험의 상황이라면 영미는 안타깝게 죽게 되었고, 그를 복제한 영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할 테니까 말이다.

우리는 사유 실험 5에서는 잠에서 깨어난 영미가, 사유 실험 6에서는 죽은 영미가 원래의 영미와 동일한 개인이라는 직관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런 직관을 가지게 되었을까? 바로 신체가 분해되지 않고 동일한 신체를 연속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는 신체 이론에서

11) Williams, *Problems of the Self*의 21쪽에서 이 논증을 볼 수 있다.

출발하여 그 이론이 갖는 문제점 때문에 기억 이론으로 나아갔지만, 우리의 직관은 다시 신체 이론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다.<sup>12)</sup> 그렇다고 해서 신체 이론이 옳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직관이 옳다고 할 때 그렇다는 것이다.

### (3) 영혼 이론

영혼 이론은 개인의 동일성의 기준이 영혼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이때 영혼은 비물리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이다. 영혼 이론은 사후 세계에 대해 가장 그럴 듯하게 설명할 수 있다. 신체와 기억은 죽음 이후에 유지되지 않으므로 한 개인이 죽음 이후에도 살아남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하지만, 영혼의 존재는 그 문제를 잘 설명해 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후 세계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사후 세계의 존재를 입증하기 전에는 이론적인 장점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비물리적인 영혼의 존재부터가 확인가능한 것이 아니다. 영미의 영혼과 동호의 영혼이 맞바꾸었는데 신체와 기억은 그대로라고 해 보자. 그때 우리에게 감각되는 것은 그대로이다. 영혼이 바뀌었다는 것을 검증할 방법이 도대체 없다.

## 3. 영화의 활용

개인 동일성 수업에서 많이 거론되는 영화는 <존 말코비치 되기>, <토탈리콜>, <메멘토> 등이다.<sup>13)</sup> 그러나 꼭 이 영화뿐만 아니라 위에서 거론한 사유 실험들을 보여주는 영화들엔 꽤 많다. 수업 시간에 영화 전 편을 다 볼 수 없으므로 사유 실험들을 표현한 장면들을 보여준 다음에, 거기서 개인 동일성의 어떤 이론들이 전제되어 있는지, 철학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은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함께 토의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 (1) 비밀

사유 실험 1처럼 사람이 맞바뀌는 경우는 영화에서 아주 흔한 소재이다.<sup>14)</sup> 그러나 대부분의 영화들이 두뇌 이식보다는 영혼이 서로 바뀐다는 설정을 하고 있다. (많은 영화에서 영혼이 바뀌는 과정은 신비일 뿐이고, 영혼이 바뀌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도 없다.) 위에서 본 것처럼 영혼 이론은 개인 동일성 이론으로서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한 편 정도의 영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이 영화들은 실제 내용에서 영혼 이론이라기 보다는 기억 이론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많다. 일본 영화인 <비밀>(1999)을 예로 들어 보

12) 김선희는 “신체전송과 개인동일성의 문제”에서 신체전송의 사유 실험은 그 자체로 신체 이론에 대한 반례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체 이론을 지지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13) 박병철의 『영화 속의 철학』에서는 <다크 시티>, 리치의 『영화로 철학하기』에서는 <존 말코비치 되기>와 <메멘토>, 롤랜드의 『SF 철학』에서는 <토탈 리콜>과 <6번째 날>, 팔존의 『영화가 된 철학』에서는 <두 영혼의 남자>가 거론되고 있다.

14) 대표적인 영화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남자 좀도둑과 여고생이 몸이 뒤바뀌는 <햏칙>, 죽은 바람둥이 남자가 여자로 다시 태어나는 <스위치>, 엄마와 딸이 뒤바뀌는 <비밀>, 81살 먹은 할아버지와 18살 먹은 손자가 바뀌는 <18 어게인>, 결혼식 중인 신부와 노인이 바뀌는 <키스의 전주곡>, 자매가 서로 바뀌는 <체인지>, 재혼을 앞둔 엄마와, 가수지망생 고등학생 딸이 바뀌는 <프리키 프라이데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바뀌는 한국 영화 <체인지>. 만화에서는 더 흔한 소재이다.

자. 버스 사고로 아내(나오코)가 숨을 거두는 순간 아내의 영혼이 혼수 상태인 딸(모나미)에게 옮겨간 후, 딸은 기적적으로 되살아난다. 그러나 영혼이 옮겨갔다는 것은 영화의 시놉시스를 통해서 아는 것뿐이고 실제 영화에서 딸의 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아내라는 것은 딸이 아내의 기억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영화에서는 깨어난 딸이 아내의 기억을 회상하는 장면이 빠르게 전개된다. 학생들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고 딸의 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누구인지, 만약 아내라면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영혼인지 기억인지 물어본다.

딸의 몸을 한 아내는 딸의 학교 생활에도 적응한다. 수학 시간에 문제를 잘 풀 아내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한다. “수학 시간에 전혀 따라가지 못했는데 앞에 나가서 푸는데 술술 풀리지 뭐야.”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말한다.

“의식은 나오코인데 너는 모나미이니까 말야.”

학생들에게 이 말이 철학적으로 타당한지 논의해 보도록 한다. 곧 의식과 뇌는 구분되는가, 모나미의 뇌에 나오코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영혼이 옮겨간 것인가 아니면 기억이 옮겨간 것인가, 수학의 능력은 의식(또는 기억)에서 생기는가 아니면 몸(또는 뇌)에서 생기는가, 운동 능력의 경우는 어떤가 ... 등과 같은 주제가 토의 가능하다.

## (2) 로보캡

사유 실험 1이 말하는 바는 개인 동일성의 근거는 뇌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맞바꾸는 경우가 아니어도 생체공학적 인간이 등장하는 영화에서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970년대의 유명 외화 시리즈물인 <육백만불의 사나이>나 <소머즈>는 뇌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를 이식한 경우이므로 가령 엄청난 능력을 지닌 ‘소머즈’가 수술 전의 교사 ‘소머즈’는 당연히 동일한 사람이다. 한편 영화 <로보캡>(1987)에서는 경찰관 머피의 두뇌를 제외한 모든 신체를 기계로 대체했다. 사유 실험 1에 내포된 직관을 생각한다면 로보캡이 곧 경찰관 머피냐고 물었을 때도 어렵지 않게 그렇다고 대답할 것 같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로보캡이 인간이었던 과거의 기억이 말소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진다. 곧 로보캡은 머피의 뇌를 가지고 있지만 머피의 기억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사유 실험 1에서 개인 동일성의 근거를 뇌에 있다고 생각한 것은 뇌에 수반하는 기억 때문인데, 로보캡이 머피의 기억은 없고 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머피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영화에서는 로보캡이 우연히 자신의 과거 기억을 상기하면서 자신의 과거 정체성을 찾게 된다. 그러면 로보캡과 머피는 동일한 개인이 될까? 이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로보캡은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머피”라고 대답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로보캡이 머피의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머피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 다인지(뇌와 거기에 수반하는 기억), 그리고 기억 이론은 기억 상실의 경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토의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3) 존 말코비치 되기

기억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영화는 많다. <존 말코비치 되기>(2000)를 보자. 인형극에서 인형을 놀리는 사람인 크레이그는 배우인 존 말코비치의 감각의 통로로 들어가는

길을 알게 된다. 그곳으로 들어가면 15분 동안 존 말코비치의 감각을 모두 느낄 수 있다. 크레이그가 존 말코비치가 ‘되었다가’ 나온 다음에 말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들려줄 만하다.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것이 철학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예요. 자연 그 자체와 정신의 존재에 관한 문제예요. 이봐요. 내가 난가요? 말코비치는 말코비치예요? ... 어떤 형이상학적인 힘이 이런 통로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해 보게 한다. 또 크레이그가 영화 제목처럼 존 말코비치가 정말로 ‘되었는지’ 물어본다.

크레이그는 제목과 달리 존 말코비치가 되지 못한다.<sup>15)</sup> 그는 말코비치의 감각을 엿보는 것일 뿐 말코비치는 아님이 영화 곳곳에서 표현된다. 크레이그가 말코비치의 몸 안에 들어갔어도 말코비치가 아니고 여전히 크레이그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대답하게 한다.

#### (4) 메멘토

<메멘토>(2001)는 훨씬 복잡한 영화이다. 아내가 살인당한 충격으로 기억을 10분 이상 지속시키지 못하는 전향성 기억상실증 환자가 된 레너드가 아내의 살인범을 찾아간다는 줄거리의 영화이다.<sup>16)</sup> 이 영화에서도 영화의 앞부분을 학생들에게 보여준다.<sup>17)</sup>

“너는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  
“나는 레너드 켈비아. 샌프란시스코 출신이고.”  
“그건 과거의 너였고.”

그리고 질문을 던진다. 정말로 지금의 레너드와 과거의 레너드는 동일한 사람이 아닌가? 레너드는 불과 10분 전의 일도 기억하지 못하므로, 10분 전의 레너드의 기억과 현재의 레너드의 기억은 전혀 연속적이지 못하다. 물론 우리도 과거의 일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앞서 기억 이론을 소개할 때 말한 것처럼, 몇 개의 기억들이 연속되어 순간순간의 나를 연결시켜 준다. 그러나 레너드에게는 그런 기억의 연속이 전혀 없다. 기억 이론에 따르면 레너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똑같은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 10분마다 서로 다른 레너드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사유 실험 4와 같은 분리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다. 사유 실험 4에서는 영미가 동시에 영미\*와 영미\*\*로 분리되는 실험이다. 영미\*와 영미\*\*는 실험 전까지의 기억을 공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레너드의 경우에는 사고가 있기 전의 레너드가 수많은 레너드로 분리된다. 그들은 사고 전의 기억은 공유하지만 각자 새로운 (10분이긴 하지만) 삶을 살아간다. 다만 레너드\*, 레너드\*\*, 레너드\*\*\*, ... 은 동시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레너드의 사례는 사유 실험 4처럼 기억 이론에 대

15) 이왕주는 『철학, 영화를 캐스팅하다』에서 <존 말코비치 되기>의 영어 제목이 *Being John Malkovich*임을 지적한다. ‘이다’는 동일성의 뜻임은 말할 것도 없다.

16) 이런 질병의 환자가 등장하는 소설로는 오가와 요코, 『박사가 사랑한 수식』(김난주 옮김, 이레, 2004)이 있다. 수학자인 ‘루트’ 박사의 기억은 80분간 지속된다.

17) 사건 전개상 가장 마지막 단계가 영화에서는 맨 앞부분에 온다. 그 다음 진행도 시간의 역순이다. 왜 그런 진행을 택하게 되었는지, ‘기억’이라는 점과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생각하게 해 볼만 하다.

한 반례로서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비분리 조건의 기억 이론이라면 레너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뿐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지만 레너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직관이다. 그 직관을 존중한다면 그것은 레너드의 신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수많은 레너드들에게 사고가 있기 전의 레너드의 기억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일까?

#### (5) 6번째 날

<토탈 리콜>(1990)도 기억 이론을 강력하게 지지해 주는 영화이다. 웨이드는 자신이 원래는 하우저라는 비밀 요원이었는데 정부를 배반하게 되어 자신의 기억은 모두 지워지고 새로운 가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그의 현재 부인은 “당신의 인생은 꿈에 불과해.”라고 말한다.<sup>18)</sup> 웨이드는 “그럼 난 누구지?”라고 묻는다. 이 장면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그 물음에 대답하게 한다. 웨이드는 하우저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우저의 기억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하우저라고 말할 수 없다.

웨이드 역을 맡은 아놀드 슈워제너거의 또 다른 영화 <6번째 날>(2000)은 분리 논증을 훌륭하게 보여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화이다.<sup>19)</sup> 슈워제너거가 연기한 아담 김슨은 어느 날 퇴근해 보니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자신의 집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6번째 날 실수로 복제된 인간이라고 체포당한다. 알고 보니 자신이 복제 인간이 맞다. 신체는 DNA 샘플을 복제하여 만들었고, 기억은 시력 측정기라고 속여 빼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을 학생들에게 보여준 후, 이 영화는 사유 실험 3, 4, 5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학생들에게 묻는다.

<6번째 날>은 사유 실험 5를 보여준다.<sup>20)</sup> 원래의 아담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그의 기억과 신체를 복제한 아담\*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학생들에게 아담과 아담\*는 동일한 개인인지, 그리고 동일하지 않다면 아담과 아담\* 중 누가 진짜 아담인지 질문한다. 사유 실험 5에서도 그랬지만 우리의 직관은 아담의 손을 들어준다. 아담과 아담\*은 똑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물론 복제된 이후부터의 기억은 다르다), 아담은 분리되기 이전의 아담과 신체적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영화에서도 이런 직관에 충실하게 결말을 맺는다. 아담은 원래의 아담의 삶을 살아가며 아담\*은 떠나간다는 식으로.

영화에서는 악한들이 원래의 아담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담의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그의 동료 대신 죽었다. 애초의 계획대로 아담이 죽고 아담\*만이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 상황이 바로 사유 실험 6이 말하는 내용이다. 이제 아담\*가 원래의 아담과 동일한 개인인지 물어보라. 여전히 아담과 아담\*는 다른 사람인가? 아니면 같은 사람인가? 만약 같은 사람이라고 대답한다면 그 근거는 둘의 기억이 똑같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혹시 이제 아담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담\*가 아담으로 살아가도 아무런 윤리적, 사회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고려가 개입되어 있지 않았을까? 만약 다른 사람이라고 대답한다면 이 상황은 사유 실험 3, 곧 순간 이동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물어보아야 한다. 만약 아담이 순간 이동 전송기에 들어갔다면 그의 몸은 산산이 없어졌고 대신에 새로운 아담이 만들어진다. 아담과 아

18) 이런 점에서 <토탈 리콜>은 <매트릭스>(1999)와 함께 데카르트의 악마의 가설을 보여주는 회의주의 수업에서 즐겨 활용될 수 있다.

19) 그래서 마크 롤랜스는 『SF 철학』(100쪽)에서 아놀드 슈워제너거를 ‘철학적 액션 배우’ 또는 ‘오스트리아 철학자’라고 부른다.

20) 사유 실험 3, 그러니까 원격 순간 이동을 보여주는 영화로는 <더 플라이>가 있다.

담\*가 신체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21)

#### 4. 결론

지금까지 개인 동일성이란 문제에 대해 철학적으로 어떤 이론들이 오고 갔는지를 제시하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유 실험에 활용될 만한 영화를 소개했다. 실제 수업에서는 이론을 모두 제시한 다음 영화를 보여주는 것보다 철학 이론들 간의 다툼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해당하는 영화 클립을 보여주고 학생들의 의견을 이끌어 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대부분의 철학 이론이 그렇지만 개인 동일성 문제도 완결된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유 실험은 퍼즐 형태로 되어 있지만 정답이 정해져 있는 퍼즐은 아니다. 사유 실험이 하는 역할이 특정 이론이 설명 못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신체 이론이나 기억 이론 모두 완벽하지 못하다. 학생들에게 영화로 제시된 퍼즐에 대해 자신만의 풀이 과정을 제시하게 해 보고 서로의 풀이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봄으로써, 철학은 정답을 제시하는 활동이 아니라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답을 내어놓는 과정임을 깨닫게 해야 할 것이다.



---

21) 손병홍은 “인간 복제와 동일성”에서 “클론과 클론\*는 동일한 인간이 아니다. 복제 후의 클론\*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심리적 상태를 형성해 갈 것이므로 클론\*의 심리적 상태는 죽기 전의 클론의 심리적 상태들과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둘의 심리적 상태들은 연속된 것이 아니라 단절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111쪽)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적 상태들의 연속성은 복제되는 순간에 따져야 한다. 복제된 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심리적 상태를 형성해’ 간다는 것은 연속성을 판단할 때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 Using Film in Teaching Personal Identity

Hoon, Choi

To use film in philosophy classroom is good in that film excites students and serves for the concrete example of philosophical theories. This article is a case study of using cinema in teaching philosophy. First, I explain the three theories on personal identity, and six thought experiments to be used to clarify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each theories. Embodying the thought experiments, SF films are good teaching materials. I explain how film clips are to be used in classroom.

**Key Words:** Personal Identity, Film, Body, Memory

K C I